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1
----------	------

발의연월일 : 2024. 7. 25.

발 의 자 : 송기현 · 조 국 · 김영배  
허 영 · 정성호 · 이소영  
김태년 · 주철현 · 민병덕  
정일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유해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16조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 조사 방법·범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5조의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유해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유해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기방치 건축물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16조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u>③ 환경부장관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제16조</u></p>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유해성 조사의 실시 시기,  
조사 방법·범위 등 조사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